

나의 감사

삼하7:18-29, 딤후1:12-17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게 믿기를 축복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다. 한 분도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해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인 줄을 믿는다. 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가 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화낼 수 없고, 다룰 수 없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언약계 모실 성전 짓기를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통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집에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깊은 소통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깊은 소통의 열쇠가 살전5:16-18에 나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말하자면 24시 하라는 것이다. 24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기쁨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24시 기도, 24시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찾아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24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체험하고 발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1.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불신자 상태에서 멸망당해 마땅한 자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속에서 헤매며 마귀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다. 근본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가 이상심기는 사주와 팔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달려야했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실패해야만 했던 사람이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었고 나 뿐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을 전달해야 할 재앙만난 인생이었다. 길을 몰라서 늘 방황했던 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일기장을 보니까 '어둠을 헤치고 빛을 찾아' 이것이 내 일기장의 제목이었다. '정말로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헤치고, 나를 인도하는 빛은 없는가.' 헤맸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다. 롬5:8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이 순간에 해결해 주신 것이다.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그 분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엡2:8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주님을 요1:12말씀대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전3:16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떠나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주님이 내 속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추하고 더러운 나를 자녀삼아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바이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과 특히 모든 성도여러분, 램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영혼 깊이 각인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각인되기를 기도한다.

2.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내 인생 일생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벌써 어린이 부장을 했다. 그 때 헌신의 시간이 있었는데 헌신하는 목록을 보니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겠다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네, 저는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만 간다고 해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나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교회 속에 살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 옆에서 복음을 받은 강도처럼, 그냥 믿고 천국 가는 인생만 되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인생을 세상에서 술, 도박, 방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계속 듣고 나누는 것이 내게는 더없는 행복이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며 헌신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어렸을 때 주일 학생 때 최생빈씨라고 나의 숙부가 계신다. 이 분은 자녀 셋을 놓고 39세에 떠나셨는데,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다. 그 때 내가 볼 때는 궁궐같이 아름다운 교회였다. 교회를 지을 때 기둥과 들보를 저 멀리 있는 나무로 만드는데, 마을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무거운 나무를 5km가 되는 길을 운반해주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일찍 가면 벌써 와계신다. 유리창이 없으니까 유리물을 바르는 그런 유리창을 넣었다.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름을 쓰고 교회 이름을 쓰고선 했다. 이 분이 오셔서 손으로 만지면서 울상이 되셔서 혀를 차신 것을 보았다. 이 교회를 한 바퀴 도시면서 기둥을 만지시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3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그 분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나를 드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찾아서 세워 주셨다. 바울은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 불러 종을 삼아주신 분이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도 들은 것이다. '정용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런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19살에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 그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시골에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모른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신 분이다. 코를 흘리면서 비천하게 시골에서 벌거벗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네 생명은 하늘과 땅을 다 팔아도 못 살만큼 귀한 존재이다.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비천한 내가 하늘과 땅을 쥐도 못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라니.'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니 제 고민은 돈을 버는 것에 이 귀한 생명을 바칠 것인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이 인생을 바칠 것인가? 그런 길은 내게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고관대작이 되는 것인가? 권력을 잡아보는 것인가? 그런 것에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였으니까 다 허접하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인 그 분에게 바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이요 소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아보면 성도들의 사랑만 받았다. 선배, 후배들에게 많은 사랑만 받았다.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교인

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일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전에는 겁 없이 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우들이 고생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깐 감히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졌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명, 사명, 소명으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다. 중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사가 생겨나고 폭발하기를 축복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다투처럼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다. 복음을 몰랐다고 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억눌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누르고 크리스찬의 삶이 나를 옹아매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 늘 생각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생을 다해 섬겼지만,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갈등이 내게 있었다. 성경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늘 성도들을 달래며 살아야 했다.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만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한다. 은혜 받을 때는 잘 생활하다가, 오뚜기가 흔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나의 고민이 되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의 목회가 봄 집회를 하면 여름이 지난다. 가을 집회하면 겨울이 지난다. 그러면 3,4개월 지나면 또 봄 집회한다. 대체로 큰 교회가 그런식으로 회를 운영해왔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사람이 변하더라.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일부러 가까이 하지 않고, 일부러 화나게 만들어보기도 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게 되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자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잘 해줘서 잘 도와줘서 잘 섬겨서 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알도록 나를 은혜로 인도해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살리도록 결단하게 하셨다. 나이 50세가 넘어서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 카톡의 상태메시지는 ‘한 번 뿐인 인생, 복음만을 위하여’ 이렇게 써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의 모토이다. 이제는 그것만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 결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전할 방법도 허락해주셨다. 우리가 이 응답을 다 함께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한다.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메시지를 전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목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설명해주고 내 영혼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주는 일이 없었다. 그냥 들은 풍월로, 배운 풍월로 그러했거니.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전세계 현장으로 가게 하셨다. 처음에 오금중앙교회에서 ‘오금동 방이동과 저 2동 사람들’ 노래를 같이 불렀다.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 때 모습을 보셨는지 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그렇게 뛰어다닐 때처럼만 울인시켜주세요.’ 아마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입술이 터지면서까지 날마다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 때 복음을 누리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장과 함께 237개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다. 어떤 때는 미국 횡단하게 되었는데, 미국 일주를 두 번이나 했다. 그 때 미국을 횡단하려는데 돈이 천만 원 이상 들었다. 시카고, 뉴욕, 뉴저지, 워싱턴, 펜스테이트, 필라델피아, 휴스턴, 앨러스, 킬린, 덴버, LA, 오렌지카운티,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오고 그리고서 하와이로 건너왔다. 한 달 동안 다니는데 나중에는 기운이 다 빠지더라. 지금도 그 때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은 하신다. 복음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나는 빛만 진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4.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끝까지 인도해주셨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나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인도해주셨다. 시71:18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지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시48:14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요새 번역은 조금 다르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인도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나는 그렇게 하시리라 꼭 믿는다.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주셔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주셨다. 위기 당할 때에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체형하면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 ‘최복사는 범통이고, 바르게 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20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한 지킬 것이라 믿는다. 이 노래는 조금 어렵고 잘 안 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감사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가 하해와 같았으며, 참사랑 교우들의 사랑이 하해와 같았다. 진실로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전부 나의 감사를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려는 주일되기를 축복한다.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임을 발견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실제로 감사할 크고 작은 제목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란다. 그것을 가지고 시간마다 찬송하고 표현해보기를 바란다. 찰스 웨슬리가 노래했다. ‘만 입이 내게 있다 해도 그 입 다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뿐인 입인데 열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신앙을 내뿜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겠는가. 그 입 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신앙이 암덩어리와 같다. 모두 던져버리고 24시, 나의 감사를 누리다가 승리하는 성도들, 도전하고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았습니다. 종의 감사가 우리 참사랑 모든 교우들의 감사가 되고 우리 램넛들의 감사가 되게 축복해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셨던 주님, 참사랑가족들의 인생을, 일생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다투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증인된 것처럼, 다윗과 요셉이 증인된 것처럼 우리 참사랑가족들은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